

美國의 經濟 現況 및 展望

國際部

일부 美國人들은 직업을 잃었으며, 직업을 가진 대부분의 美國人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생활이 어려운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부분 직업을 가진 美國人들의 生活水準은 전보다 나아지고 있으며, 그들 스스로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1981年 레이건의 大統領 當選과 함께 美國人들에게 제시한 문제가 최근 大統領選舉 운동을 통해서 새로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 미국을 이끌어 나갈 經濟政策 및 유권자들에게 대한 소득의 再分配, 美國 前大統領 Carter가 제시했던 것과 동일한 표면상의 經濟成長과 生産量의 증대 등이 레이건 통치 시기를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에 대해 유권자들의 반응이 요구된다.

美國 여론조사에 따르면, 美國人들도 자신들의 생활이 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여러 機關들의 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960年代 후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현상태의 經濟狀況이 더욱 호전되었다고 느끼는 美國人들이 많다. 그 이유를 들자면, 빈곤정도를 지시하는 「misery index」는 物價上昇 및 실업률의 합계에 의해 산출되며 同 「misery index」는 레이건 大統領 當選시기인 1981年 1月 현재 17.9%에서 1988년 현재 9.7%로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美國 1인당 실질 國民所得은 1981年 1만2,287 달러에서, 해마다 1,500달러씩 증가해 왔다. 주지

할만한 사실은 흑인 중산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흑인 실업률이 감소되었다. 특히 흑인 10대들에 대한 실업률은 급격히 감소했다.

그러나 10년에 걸친 경제불황을 겪은 美國人들 중 일부의 생활은 어려워졌음이 확실하다.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젊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해, 부유한 중산층조차도 두려워 하고 있다. 대학교육을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投資해야 하며,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두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그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생활이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다면 8년여에 걸친 레이건 行政府의 임기만료와 더불어, 어떤 계층의 生活水準이 향상되었으며, 어떤 계층의 生活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給料 및 所得의 변동에 있다. 民主黨의 지적에 따르면, 시간당 평균 給料의 하락-1981年 시간당 8달러 98센트에서 2.6%가 하락하였다. 한편 共和黨의 공박에 따르면 중산층의 평균소득이 증가했다.

시간당 給料은 레이건 行政府 時代의 財政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들 중 가장 부적당한 지표이다. 同 指標은 4.2%의 增加를 보인 醫療保險 및 연금 등과 같은, 勞動者에 대한 特別給與와 수수료, 利潤配當金, 특별상여금 및 他補償金들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사실은 시간당 기본급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본급은 私企業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4/5가량이 받는 유일

註:美 레이건 行政府의 8년간 치적을 집중 취재한 「Fortune」誌 특집 기사를 발췌, 번역한 것임.

한 현금보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기본급상의 하락이 美国 全地域에 확산되는 추세라면 여론의 긍정적인 입장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부류의 대부분은 中小企業들이다. 80年代 매우 두드러졌던, 中小企業內에 高賃金과 低賃金間의 격차에 의해 평균임금이 산정되고 있다.

高賃金 所得者들 중에서 제강소 근로자, 自動化工場 技術者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한 예로, 실질 평균임금이 시간당 9달러 91센트까지 10% 가량 폭락하였다. 他 所得者들 중에서, 戰後世代 勞動者들의 범람으로 전체직업의 평균임금이 하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기의 두임금사이의 시간당 임금은 증가되었다. 財政 서비스 費用, 保險料 및 不動産 가격의 증가에 따라, 시간당 임금은 지난해 8달러 73센트에서 9% 가량 增加했다.

家族들의 실질소득 정도에 따라 그들 福祉實現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중산층 가족의 실질소득-勞動力的 탄력적인 확장에 따른-은 1981年 수준보다 훨씬 증가되었으며, 1982年の 景氣回復에 따라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가족들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 가족 단위당 일을 하는 가족수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1인당 國民所得은 增加 추세에 있다. 흑인들의 실질소득은 레이건 大統領 재직당시 15% 가량 증가되었으며, 이는 카터 時代의 4.6%의 增加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개선된 것이다.

그렇다면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생활수준이 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점에 대해 어째서 정치인들은 동의하는가? 그 이유는 1980年代의 經濟繁榮이 압력에 의해 획득된 것이며, 일부 美國人들의 생활수준을 어렵게 만든 經濟變化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1981年 이후 96만개의 勞動을 요하는 직업들이 사라졌고, 대신에 직업을 갖고 있는 勞動者들의 이윤이 감소되었다. 그러는 동안에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한 젊은 勤勞者들은 예전의 職業獲得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레이건 통치기간 동안에, 25세에서 34세의 실질평균소득은 2만378달러로 5% 가량 하락했다. 無經驗의 20~24세의 근로자들의 所得은 1만3,084달러로 12%하

락했다. 상기와 같은 無經驗 및 非熟練 근로자들을 위해 예전에는 중산층이 되기 위한 충분한 소득을 제공했었으나, 현재로서는 상황이 다르다.

별로 技術을 필요로 하지 않는 高所得의 勞動者들을 위한 일자리는 생산직 중 소수를 차지하며, 현재 世界 市場競争에서 그러한 임금수준을 제공할 수 없을 만큼 高賃金 노동력이다. 同職業에 종사하는 젊은 勞動者들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그들 자신의 집을 소유하는 꿈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러한 賃金水準의 算定으로, 고등교육을 받는 일이 財政的인 보호를 받는 것 이상의 도움을 주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다. 실질 소득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도, 1980年代의 美國社會 및 家族生活을 휩쓴 변화들에 빠르게 대처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레이건 통치시대에는 그 시기의 사회적 문제들 중 한가지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戰後 baby boom과 戰後世代의 勤勞者, 父母, 住宅所有者 등등으로서 그들의 사회활동 그리고 보다 나은 사람들의 경우,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에 대한 책임. 第2次 世界大戰과 그로 인한 經濟恐慌 사이에 태어난 많은 美國人들이 현재, 總 투표자들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 대공황의 공포와 第2次 世界大戰의 획일주의를 경험하지 않은 Aquarians(수병좌의 사람을 뜻함) 戰後世代들은 50年代의 번영과 방종에 물들어 있다. 戰爭 勝利者인 美國人들의 생활은 윤택해졌으나 그것이 생활의 안락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戰後世代들은, 경제적인 압력이 극대화될 때 그들 생활의 부유함을 이루어 왔다.

戰後世代 家族들의 대부분이 부부가 함께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고 있다. 아버지가 가장인 전통적인 美國 家庭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며, 이는 1980年과 비교하여 300만이 줄어든 1,520만 세대에 이른다.

반대로, 양쪽 부모가 모두 일하는 경우는 전체의 반이상을 차지하는 2,720만 세대로 增加되었다. 25세에서 45세에 이르는 2,900만명의 여성들이 현재 직장에 나가고 있다. 그 중 가장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부류는 3살이하의 아이들을 양육하는 여성들

이다.

전통적인 가족체제를 따르는 戰後世代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이며, 대부분의 美國인들이 가족의 중요성보다는 물질적인 혜택을 상위에 놓고 있다.

1981年 이후 실질평균소득은 3.1% 增加했으며, 그중 양쪽 부모가 모두 직장에 나가는 경우의 실질평균소득은 8.6% 증가했다.

傳統家族體制를 가진 美國인들의 생활이 전보다 빈곤해졌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교외에 살고 있는 Tom과 Marci Mc-Entires 부부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들은 12살과 6살의 두 남매를 양육하며, 그들의 주 수입원은 3만달러에 달하는 Tom의 輸入이 전부다. Marci가 직장을 나가지 않는 이유는, Marci의 부모 경우 당시 그녀의 어머니가 호텔 종업원으로 일했으며, 그것이 이혼 사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들 부부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보다 현실적이다. 보다 큰 집을 사고, 보다 멋진 차를 타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하는 것 등이다. Marci에게 있어서, 傳統家庭의 어머니 역할이란, 직업에 종사하는 어머니들의 수가 증가하는 현재와 비교할 때, 갈등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중요하며 家庭內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보다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리기 위해 양측 부부가 모두 직장을 갖는 경우,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남편의 俸給水準이 평균이하이기 때문에 일하는 여성들이 42%인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71%에 달한다. 주부들이 직장에 나가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여성을 바라는 직장의 수가 예전보다 增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男女의 給料 차이는 5%까지 좁혀져 왔다. 現代 職業女性들의 20%가 남편보다 많은 급료를 받고 있다. 여성들의 大學入學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며, 1981年 이후 經營者 및 專門職業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수가 48%와 28%로 증가했다.

양측이 모두 직업을 가지는 경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을 대부분 잘 해결해 나가고 있다. Adams 부부의 경우를 예로 들면, 남편인 Jim은 조그만 섬유회사의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데 그의 수입은 2

만8,000달러이며, 그들 부부가 살고 있는 복식아파트의 4만7,500달러 가량을 지불하기에 충분하다.

아내인 Carol은 치과 위생관리인으로서 1만7,000달러 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들은 아이 양육에 대해 걱정은 하고 있지만, Carol이 직장에 계속나가야 된다는 사실에는 동의하고 있다. 과거의 美國 家庭들은 물질보다 家族의 價值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現代社會에서는 전자렌지, VTR, 두대의 자동차 등 생필품들을 장만하기 위해 두사람이 모두 직장에 다녀야 한다.

美國인들이 자신들 소유의 집을 마련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자.

高等學校 教育만을 받은 25세에서 34세까지의 勤勞者들에게 있어 그러한 생각은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자기 집을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1981年 이후 젊은 층들이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첫번째 가능성을 가진 구매자로 부상하였다는 조사 발표가 있다. 不動產 경기호황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을 소유할 만큼 많은 돈을 벌고 있는 勤勞者들은 드물다. 멕시코 이주민인 Adam과 Rita의 수입과 생활에 대해 살펴보자. Adam은 San Diego Country 會社の 정보처리 기사로 일하며, Rita는 電子會社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총수입 3만5,000달러를 절약하여 매월 350달러를 貯蓄해 왔다. 해마다 10% 가량의 俸給上昇으로 도시근교의 집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들 貯蓄額의 반정도와 부모에게 나머지 반을 빌려 지난 5월에 집을 샀다.

레이건 時代의 변영은 불공평하게나마 흑인들에게도 나누어졌다. 일부 흑인들은 아직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나, 黑人 中산층의 擴散 및 상승은 레이건 時代의 성공사례로 기록될 수 있다. 1981年 이후 夫婦가 모두 직업을 가진 흑인들의 수가, 30만명이 증가한 24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점유비율로 볼 때 전체에서 세번째를 차지한다. 그들이 full time으로 일하는 경우 평균소득은 실질적으로 10% 가량 증가했으며, 금액상 4만달러에 달한다. 이 부류가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은 모

두 市民權 운동에 의해 확보된 여러 혜택들을 누리면서 성장해 왔으며, 새로운 중산층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젊은 흑인 부부들은 대부분 중노동을 하고 있다. 편모 슬하에서 자라난 Sammie와 Sharlene은 둘 다 大學을 졸업했다. Sammie는 강철회사에 근무했으나, 곧 실직했다. 두번째로 그는 경비원으로 취직하여 시간당 6달러를 받게 되었다. 1985년에 그는 職業을 바꾸어 상담원으로 일했다. 현재 Sammie의 아들은 여섯살이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 Sharlene은 회계원으로 일했다. 그녀의 稅金 공제된 실질소득이 3만3,000달러 정도이다. 그들 부부는 올해안에 집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레이건 美 行政府가 美國人들의 복지를 위해 확정적인 조치를 취하는데는 무관심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기록을 통해 볼 때, 그러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1980年代의 職業의 다양성으로 흑인들이 職業을 가질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아졌다. 黑人 10代들의 실업률은 레이건 行政府의 집권기간 동안에 31%로 10% 가량 하락되었다. 또한 大企業들은 제외된 부류를 위해 확정적인 僱傭機會를 확대하고 이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美國 勞動庁 統計에 따르면, 1981年에서 1986年初에 걸쳐 공장폐쇄에 따른 고용인원의 삭감을 통해 職業을 잃은 510만명에 이르는 勞動者들의 2/3 가량이 재고용되었다. 그들중 50% 이상이 예전의 실질급료보다 많은 급료를 받고 있다. 재고용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고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여 아주 은퇴해 버리거나, 하부계층으로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機械工인 Lloyd Jester는 5번이나 職業을 바꾸었는데, 失業期間 동안에 정부로부터 받는 失業 保險金과 고용기간동안에 호경기의 영향으로 많은 돈을 모은데다가, 그의 아내의 소득을 합쳐, 한 일자리에 꾸준히 고용된 경우보다 더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되었다.

엄마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생활은 다른 어느 경우보다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들중 34% 가량은 이혼을 했기 때문에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이혼한 후 1年内에,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所得은 이혼하지 않았을 경우의 1/3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그들의 數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생활의 빈곤함으로부터 살아 남으려는 그들의 노력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同時代 美國人들이 바라고 있는 한가지 희망사항은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다. 대학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요구되고 있다. 장래에 좋은 職業을 가지려면,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大學을 졸업한 後 5~10年 가량의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年平均所得이 4만2,346달러인데 반해 高등학교 教育을 받은 사람들의 年平均所得은 그들의 1/3 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4년제 大學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平均 所得이 1981年 이후 20% 가량 증가한 데 비해, 政府의 財政補助費의 증가는 6.5%에 지나지 않았다.

1. 適性에 맞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大學에 갈 수 있다.

펜실베니아 大學에 재학중인 Steven은 中國으로부터 美國에 온 이주민이며 그의 부모들은 의류 공장에서 값싼 勞動者로 일하고 있다. 英語文法學校를 졸업한 후, Steven은 Exter Academy에서 장학금 및 생활보조비를 받았으며, 지금은 펜실베니아 大學으로부터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 Steven의 두형은 大學을 졸업했고 나머지는 大學에 재학중이다.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大學에 다니는 이유는 그들이 大學교육으로 인한 성공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美國人들은 피상적인 허영심 때문에 아이들을 大學에 보내는 경우는 드물다. 현재 美國의 大學生들의 수는 1,100만명에 이르는 반면 高등학교 졸업생들의 경우 16% 가량 감소하였다. 大學 登錄金을 내기 위해 특별히 저축을 하는 부모들은 드물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教育을 위해서 돈을 投資하기 보다는 새 自動車나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 돈을 投資하는 경우가 많다. 소득의 증가를 뛰어넘은 大學 지출비용 때문에 그러한 경우들이 용이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美國人들이 그들의 부

유한 생활이 계속될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美國人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소득과 요구 사이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時點에서 일부 美國人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1980年을 재구성함에 따라 世界 各國들간의 경쟁을 견디낼 수 있는 美國을 재창조하게 될 것이며, 1990年代에 이르러 레이건 時代에 얻지 못했던 경제적인 혜택을 보다 많은 美國人들이 누리게 되리라는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戰後世代가 일정단계에 오르면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요구를 앞지를 것이다. 前보다 많은 美國人들이 일자리를 얻고 있어 7月 현재 失業率은 5.4%에 지나지 않으며, 이 數値는 최근 몇년 동안에 걸쳐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美國은 1980年 이후 西方 側 고용률의 89% 가량을 창출해 냈다. 유럽측 고용률이 1980年代 1.4% 增加, 日本의 고용률은 美國의 절반가량에 지나지 않는다. 어떠한 고용책을 택하느냐에 따라, 1982年 후반 경기회복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美國 全体 고용인구는 1,600만 내지 1,720만명에 달한다. 새로운 일자리의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과장된 캠페인 광고를 본다면 무척 놀라울 것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美國 經濟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美國이 創出해 낸 새로운 고용의 대부분이 햄버거 나르기 등의 단순변용적인 점을 비난하고 있다.

勞働局의 한 專門家는 증가일로에 있는 인기있는 직업은 보다 高度의 전문성과 보다 많은 報酬를 받는 직업을 의미한다. 큰 범주로 보면, 經營者들과 專門人들을 들 수 있다. 그들은 美國 일자리의 25%를 차지하며, 1983年에서 1987年에 걸쳐 추가된 새 직업들 中の 36%를 차지한다. 새로운 고용협회의 11% 가량이 숙련된 技術을 갖춘, 構造工學 등의 工學分野의 專門 技術人들을 의미한다. 컴퓨터 情報處理技士의 고용률은 19% 가량 增加했으며, 컴퓨터 오퍼레이터의 경우 53% 증가, X-ray 專門 撮影技士들의 경우 26%의 증가를 보였다. 새로운 고용의 90% 정도가 Full time 고용이다. 所得增加는 새로운 형태의 職業增加에 따른 것이다. 1981年에서 1986年에 걸쳐 Full time 고용의 실질 평균소득은 남자의 경우 3.8% 증가, 여자의 경우 9.8%의 증가를 보였다.

중간층의 소득을 얻는 고용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同 雇傭機會는 새로운 고급 雇傭增加에 기여하고 있다. 소비자 가격지수가 CPI보다 정확한 소득상의 증가를 반영하고 있으며, 1986年 美國 家族의 평균소득은 5만6,000달러에 달하며 이는 1969年 7.5%에서 1986年 15.3%로 두배로 增加되었다.

美國 고용기회 확대가 성공할 수 있는 점은 美國 經濟가 직면한 두가지 시대적인 조절에 맞춰 싸워 이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70年代에 시작되어 '80年代初까지 美國 經濟가, 사회경험없고 고용의욕만을 지닌 여성 근로자들을 포함한 戰後世代들의 사회적응에 힘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1980年代 가 열린 國際競爭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美國 産業의 재구성이 행해지는 동안 고용기회는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다.

그러한 고용의 획기적인 증대가 아무런 희생없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은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누가 그 희생을 치뤄야 했는가: 첫번째로, 大學教育을 받지 못한 젊은 근로자들을 들 수 있다. 美國 産業의 再構成 計劃이 추진됨에 따라, 技術이 없거나 혹은 熟練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급료를 지불했던 제조업체들의 고용기회가 축소되었다. 이 世代를 「브루스 스프링스턴 世代」라고 칭하는데, 그들은 자주 분노하고 실망하며 자신들의 운명이 종말에 다다르고 있음을 느끼며, 이는 예전의 Rust Belt 세력의 강한 저항보다 더 극심한 저항으로 작용하여, 美國人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충격은 現代 世界 經濟가 적응해 나아가야 하는 변화를 멈추기 위한 법규를 추구하는 自由主義者들간의 반향적인 애수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새로 일자리를 얻은 1,600~1,700만명에 이르는 근로자들 간에 미래가 확실하지 않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재구성된 회사들은 경기침체에 내보낼 만큼 많은 고용인들을 고용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재구성이 진행되는 동안, 임시 고용인들에 고용인들의 해당회사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会社들은 임시로 근로자들로 고용하고, 廣告나 情報處理들의 회사내 서비스 제공부서를 확장한다. 예전의 製造産業分野는 서비스 産業分野까지 포함해 왔다. 勞働局의 한 經濟 專門家의 임시 고용인에 대한 보

고서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경제침체에 필요한 부수적인 노동력을 위해 임시직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으며 임시직 근로자들은 經濟의 일시적인 상황에 맞서기 위해 혹은 고정적 근로자들의 부채를 메꾸기 위해 동원되고 있다.

2. 美国内 부유계층과 빈곤계층

美国人들이 오랫동안 견디어온 불평등한 사회 속에 자유를 심을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있어 많은 美国人들의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각계각층의 美国人들에게 골고루 복지혜택을 줄 수 있을 지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無住宅者들과 거지들의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美国 人口調査에 따르면, 美国은 두가지 형태의 사회를 형성해 가고 있다. 全体 人口中 최고층 1/5이 미국 전체소득의 4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저층의 1/5이 차지하는 부분은 4.6%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쟁을 전후하여 좁혀져 온 간격은, 1969年 이래 다시 벌어지기 시작했다. 과장된 표현을 빌리자면, 上記의 統計숫자를 통해 볼 때, 부유층은 더욱 더 부유해지며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져서 그들의 미래는 암담하다. 최고층의 1/5이 차지하는 所得分配額은 1981年 이후 현재까지 1.8% 增加하였다. 그러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높은 소득을 얻고 있어, 금액상으로 볼 때 최고 그룹이 20%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중간계층은 성공을 거듭하여 상위그룹으로의 부상을 꾀해 왔다. 그들의 실질 평균소득은 11% 가량 증가한 5만3,000달러에 이르고 있다.

위의 변화들은 보다 큰 의미를 가진다. 「통계실적에 의해 富를 측정한다는 고정관념이 상층과 하층간의 유동성에 의해 파괴되고 있다」 美国의 한 調査機關의 調査에 따르면, 1971年 調査対象 5,000名中 빈곤층에 속하는 사람들의 44% 이상이 7년 후에 빈곤층을 벗어났으며, 특히 6% 가량은 부유 그룹으로 도약했다.

반면에 최고 부유그룹에 속하던 50% 가량이 하락을 거듭 그중 3.5%가 최하 빈곤층으로 전락했다. 가장 부유한 계층들조차도 이러한 상하 움직임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최고층 1/5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들 총소득의 2/3가량만을 정기적인 급여 및 보수를 통해 얻고 있으나, 25年前만해도 同 所得은 주로 쿠폰 및 신용장 등을 의미했다. 最高層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株式配当金, 利潤 등 간접소득을 통해 2/3 가량의 소득을 얻었다.

오늘날 과거의 부유층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最高 부유그룹에 진입하려고 노력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美国内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내는 企業들이다. 最高 부유계층의 1/5 및 最低 빈곤계층의 1/5은 몇가지 차이점들에 의해 구별되고 있다. 그러한 구별은 공정하다. 보다 많은 教育을 받고 오랜시간 동안 일하는 부부중심의 부류에 대해 더 많은 所得과 諸 補償이 주어지고 있으며, 同 부류의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고 있다.

예를 들어 1985年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들의 1/5中의 最高 부유층이 거의 85% 가량을 차지한 반면 最低貧困層이 차지하는 비율이 15%에 불과했다. 나머지 5%의 거의 半이상이 大學을 졸업했다. 35세에서 64세를 대상으로 하여 그중 3/4 가량이 最高所得을 얻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정도가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있다. 公式集計에 따르면, 지난해 美国人들의 13.5%가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다. 13.5%라는 統計는 현금이외의 식비, 생활보조비 등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同 생활보조비 및 식품비가 현금으로 책정된다 하더라도 전체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8.5%에 지나지 않는다.

13.5% 중 대부분이 일정기간 동안 그들의 빈곤 상태를 꾸준히 지속시켜 왔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지만, 13.5%에 속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빈곤상태가 일시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다. 13.5%에 속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들, 이혼녀들중 아이를 양육하는 女性들, 병을 앓고 있거나, 無能力한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10여년에 걸쳐 급진적인 經濟變化와 傳統家族体制의 혼란과 더불어, 美国人들

은 빈곤상태에서 빠져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류는, 장기간 빈곤상태에 놓여있는 흑인계층 및 생활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계층이다. 低所得層들을 위한 의료보조비가 증가했다 할지라도, 他 부문들에 대한 經費支出은 삭감되었거나 변동이 없었다. 1981年 이후 가난한 美國人들의 수는 2% 가량 증가했으며, 그들의 生活은 더욱 어려워졌다.

레이건 行政府의 經濟政策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현재 美國內에 가난한 美國人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한다. 그러나, 20年에 걸친 政府次元의 후원에 도 불구하고 복지후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고, 심지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들은 「the War on Poverty」를 the Poverty Pentagon 이라고 칭하고 있다. 80年代는 「Pace Daniel Patrick Moynihan, benign neglect」의 時代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旧時代의 經濟政策들은 새롭게 개정되어야 한다. 自由主義者들과 保守主義者들간의 중요한 논쟁거리는 빈곤요인 및 그 해결책에 관한 것이다. 保守主義者에 따르면, 공공복지제도 자체가 그들을 도울 인센티브를 파괴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이 부유해 질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고 있다. 60年代와 70年代를 거치는 동안 그들은 고된 노동과 훈련, 자제심 등으로 인해, 더 나아가서는 가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다 많은 보수를 제공하는 고용기회의 創出에 대한 政府의 후원이 없다면, 그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다고 自由主義 信條者들은 주장한다. 즉 그들은 정부측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정치적 협상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양측간의 공통부분은 해를 거듭할수록 확대되어 왔음이 사실이다. 自由主義者들과 保守主義者들 모두 빈곤자들을 위한 정책이 國家 次元이나 經濟關聯 委員會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빈곤자들에게 있어 사회는 권리뿐 아니라 의무도 부여한다. 그들은 社會에게 特定技術뿐 아니라 보다 건설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러한 견해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뿐만 아니라 제제도 가하는 「公利主義」를 신봉하는 정부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社會價值基準의 부재 자체가 그 시대를 대변하는 무가치한 社會價值基準일 수 있다.

이제 「社會定議」에 대해 주목하자. 가장 비근한 예로, 民主, 共和 양당이 超党的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공공복지법의 직업보장에 대한 조항에는 양측 부모가 있는 가정의 한 멤버가 주당 16時間을 일하는 경우, 政府의 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美國人들은 傳統的인 價值 基準을 고수하고 널리 전파할 만한 미디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旧時代의 제도 및 기관들 - 大學 및 中高等學校 등 教育機關, 敎會 등 宗教團體의 권위는 TV나 영화, 대중음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도보다 못하다. 빈곤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들이 보다 나은 상태로 나가기 위한 과도기에서 다른 貧困階層들과 합류하고 있을 뿐이다.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빈곤한 상태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가장 뚜렷한 해결방안은 그들 부담의 過重 課稅를 폐지하는 것이다. 1970年代와 80年代를 거치면서, 빈곤계층에 대한 課稅率은 增加와 減少를 거듭해 왔으며, 현 상태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빈곤계층이 美國內 經濟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熟鍊된 技術, 組織能力 및 그들의 職業과 生活을 스스로 컨트롤 해나갈 수 있는 돈 등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大統領 및 行政府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회사 및 학교, 敎會 등의 단체로부터 심지어 미래의 組織自發主義 (Voluntarism)를 지지하는 개인에게조차 도움을 받아야 한다.

3. 物品 製造業 分野에서 서비스 分野로의 轉換

物品製造業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会社들의 雇傭 擴大가 1982년부터 1986년에 이르러 전체 雇傭 擴大의 19%를 차지했다. 대표적인 同 서비스 提供 회사들은 情報處理, 經營고문단, 尖端工学 등의 産業分野를 다루는 회사들이다. 그러한 종류의 서비스 직업은 1979년에서 1987년에 걸쳐 105%의 雇傭 增大을 이루었으며, 製造業 및 農業分野 고용 감소를 대체하고 있다.

지난 40년 동안 製造業分野 産業은 經濟 호황기의 서비스 分野보다 다소 높은 失業率을 기록했으며, 經濟 침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서비스 提供分野로의 이동은 안정성을 의미하며, 그 분야의 雇傭 增大은 가장 믿을 만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雇傭 增大의 성공이유를 완전하게 설명할만한 경제정책은 없다. 美國內 다양한 經濟政策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카터 前 대통령 行政府 당시 경기침체기 下의 物價 상승에도 불구하고 840만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다. 그 이유는 美國 經濟의 성장을 이끌기 위한 촉진책으로 달러화의 切上 및 政府支出 增加를 사용했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고용인원의 增加를 높게 했다.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서서히 확대된 稅制政策에 따라 資本의 再投資가 減少했기 때문에 美國內 회사들은 資本投資가 아닌, 雇傭人員의 확대에 의한 生産性 향상에 주력하게 되었다. 이것이 美國 經濟의 호황으로 인해 戰後世代 계층의 雇傭機會 확대를 이루게 되었던 이유이다. 대조적으로 유럽은 資本의 제투자의 감소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1970년대부터 戰後世代 근로자들을 수용하는데 실패하게 되었다.

反對黨인 레이건 行政府의 정책에 따라, 緊縮財政 및 政府支出의 감소에 영향을 받아 雇傭機會는 연간 3%에 이르는 GNP 成長率과 함께 美國 經濟上的 지속적인 호기를 타고 점차로 증대되고 있다. 근로자들의 시간당 실질급료는 지난 3年間 하락세를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1981年 이후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낮은 稅制, Stagflation이 아닌 엄격한 制度에서의 이탈, 시장內 政府의 한 經濟 專門家에 따르면, 美國內 서비

스 회사들을 포함 50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들은 300만에서 400만 정도의 雇傭 增大에 기여했다.

美國內 서비스 会社들의 대부분은 중소기업의 새로운 합작형태를 갖춘 会社들이며 서비스 会社들 전체 雇傭 增大에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同 서비스 회사들중 金融機關 会社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llis-Chalmers社의 기계공으로 일했던 Joel Gresser는 직업을 잃고 그의 파트너와 함께 자본을 투자하여 소규모의 기계회사를 구입했다. 그의 輸入은 Allis-Chalmers社의 기계공으로 일했던 때보다 더 좋아졌다.

전후세대 및 해고된 Rust Belt 세대 근로자들 역시 美國 会社들의 雇傭機會를 기다리는 대신에 그들 스스로 고용기회를 만들어 왔다. 美國內 製造業分野의 雇傭率은 1979年 最高 水準에서 다소 하락한 반면 유럽 몇몇 主要國家들에서는 급격히 하락하였다. 유럽 역시 美國과 동일하게 서비스 分野에서 고용이 확대되었다. 1973년부터 1987년에 걸쳐 2,600만에 달하는 美國의 47% 雇傭 增大과 비교할 때 英國은 22%, 西獨의 경우 15% 增加에 그쳤다.

따라서, 지난 19個月 동안 美國內 製造業체의 雇傭 擴大를 창출해 왔던 Rust Belt 세대의 勞動組合이 결성되지 않고도 소규모 産業체들에게 制裁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카터 行政府와 레이건 行政府의 經濟政策間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勞動市場 운영에 대한 政府干渉을 배제하는 點에 있어서는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한 規制措置는 美國內 雇傭 擴大와는 거리가 멀다. 적당한 견제 등이 보다 좋은 일자리를 創出해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다 긴축재정을 推進해 나갔다면, 貿易赤字를 막았을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카터 行政府와 레이건 行政府의 經濟政策들 上의 비교를 통해 美國內 고용창출의 비법을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유럽과 美國間의 經濟政策上的 차이점은 알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문화상의 차이점을 의미한다. 企業家 精神 및 위험을 감수해 내는 단호함이 유럽보다는 美國內에서 더 잘 나타나고 있다.